

### 제3절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인구이동

한 지역 인구수의 변화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에 의한 사회적 증가 등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sup>10</sup>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인구 증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출과 전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구 증가는 한 지역의 입지적 특성 및 발전상태를 반영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해 주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인구 증가에 있어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제한 수치를 순 이동량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1960년 28%에서 1995년 85%로 증가한 사실<sup>11</sup>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농어촌에서 대도시지역으로 대규모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율이 도시화율의 증가치에 비해 낮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울진군의 인구감소 현상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표 12> 연령 및 성별 인구 추이 현황

구분 연도	총인구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성비
1970	114,152(100.0)	49,574(43.4)	57,094(50.0)	7,484(6.6)	56,175	55,235	101.7
1975	109,503(100.0)	44,854(41.0)	58,968(53.9)	5,681(5.2)	53,500	55,595	103.7
1980	90,782(100.0)	33,759(37.2)	51,382(56.6)	5,641(6.2)	45,487	45,295	104.4
1985	88,113(100.0)	27,906(31.7)	53,815(61.1)	6,392(7.3)	44,618	43,195	103.3
1990	69,839(100.0)	16,747(24.0)	45,719(65.5)	7,373(10.6)	34,454	35,385	97.4
1995	70,737(100.0)	13,508(19.1)	49,111(69.4)	8,118(11.5)	35,172	35,592	98.8
2000	66,298(100.0)	11,663(17.5)	44,962(67.8)	9,673(14.5)	32,912	33,386	98.5
2005	56,707(100.0)	8,933(15.7)	36,678(64.6)	11,096(19.5)	27,903	28,804	96.8
2010	52,430(100.0)	6,903(13.1)	33,422(63.7)	12,098(23.0)	25,778	26,652	96.7
2015	51,885(100.0)	5,827(11.2)	33,304(64.1)	12,654(24.4)	25,813	26,072	99.0
2018	50,036(100.0)	5,007(10.0)	31,956(63.8)	13,073(26.1)	24,983	25,053	99.7

출처 : 울진군, 2018,『울진군통계연보』

10. 울진군, 2001,『울진군지』상, 83쪽

11. 울진군, 2001,『울진군지』상, 83쪽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수는 1960년대에 약 2,500만 명 정도이던 것이 1995년 말 약 4,500만 시대를 넘어 2018년 말 현재 5,177만 명으로 60여 년 만에 2,600만 명가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으로 이민한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곧, 출생률의 증가 및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전국의 인구의 자연적 증가 수치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1960년대에 가장 높았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의 절댓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율이 어느 정도 정체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울진군도 역시 과거 도시로의 사회적 이동률이 높았으나, 울진군 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이동 인구를 어느 정도 보충했기 때문에 인구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초까지 인구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보다는, 미세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11만 명 인구가 지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출생률 증가 현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80년대 말까지는 출생률의 감소와 도시로의 이동 인구 증가로 울진군 내 인구는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히 시행되어 온 농촌 정주생활권계획 등의 농어촌 생활기반조성사업과 1980년 초부터 본격화된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건설 등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도시로의 인구이동 또한 감소하여 1995년대까지 울진군 내 인구가 7만여 명 정도로 유지됐다. 이후 2000년에 66,29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2018년 말 현재 50,036명에 머물고 있다.

<표 13> 인구 동태[출생, 사망] 현황

연도/구분	출생	사망	순증가
1985	1,396	945	451
1990	837	855	-18
1995	858	776	82
2000	719	734	-15
2005	408	605	-197
2010	355	526	-171
2015	374	587	-213
2018	250	498	-248

출처 : 울진군, 2018,『울진군통계연보』

1985년 이후의 울진군 내 주민의 출생과 사망 통계에서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한 인구의 순 증가량을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는 451명의 순증가를 나타냈으나 1990년은

-18명, 1995년은 82명, 1997년 129명의 순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순 증가율이 지난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2005년에 -197명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말 현재 순 증가율은 -248명으로 크게 격감했다.

1985년 이후는 대체로 2자녀 갖기 의식이 확산되어 출생자 수가 적은 반면 소득수준의 증대 및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사망률 또한 낮아져, 전반적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적어지는 단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순 인구 증가도 적은 편이었다. 울진군 인구의 자연 증가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85년 87,813명이던 인구가 1997년 69,263명으로 감소하고 2018년 말 현재 50,036명으로 줄어든 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인구이동 즉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4> 인구이동 현황

연도/구분	총이동		도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순이동 (전입-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985	11,232	11,320	3,397	3,505	7,835	7,815	-88
1990	8,184	10,510	3,303	3,523	4,881	6,987	-2,326
1995	8,953	8,711	3,491	3,483	5,462	5,228	242
2000	7,536	8,498	3,561	3,746	3,975	4,752	-962
2005	5,502	7,202	2,544	2,858	2,958	4,344	-1,700
2010	5,219	5,506	2,306	2,400	2,913	3,106	-287
2015	5,659	5,694	2,411	2,587	3,248	3,107	-35
2018	4,540	5,180	2,091	2,360	2,449	2,820	-640

출처 : 울진군, 2018, 『울진군통계연보』

1985년 이후 울진군 주민들의 인구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입자와 전출자를 합친 총 이동 인구는 1985년 22,000명을 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17,000~18,000명 정도에 이른다. 또 2000년대 이후에는 10,000명대를 보이면서 1990년대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순 이동량의 자료에서, 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이동량의 변화 패턴은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1985년과 1990년의 경우 전출자 수가 10,000명을 넘고 있어 당시 울진군의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울진군 내로 들어오는 전입자나 울진군에서 외지로 이주해 나가는 전출자는, 경상북도 내에서 전입, 전출하는 도내 이동자와 경상북도 외의 시와 도 지

역으로 전입, 전출하는 시도 간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5년 이후 울진군의 총 이동자 가운데 도내 이동자보다는 시도 간 이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북도 내의 다른 중소도시나 군으로 이주한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보다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다른 도로 이주 혹은 그러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85년의 경우 총 22,000명이 넘는 이동자 중 도내 이동자가 7,000여 명에 불과한 반면, 시도 간 이동자는 15,000여 명을 넘어섰다. 1990년 이후부터는 시도 간 이동자의 비율이 1985년보다는 적지만, 총 이동자의 평균 60%가량이 시도 간 이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이동자 중에는 연도와 관계없이 전입자나 전출자 수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도 간 이동자 중에는 1990년과 1997년은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 연도는 순 이동량이 -1,000명 이상을 기록한 해였다. 즉 1990년과 1997년은 경상북도 내에서의 이주보다는, 경상북도 외의 다른 시, 도 지역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울진군 내 전체적으로 인구감소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